

##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편 116:12)

예) 육군소장 전 육군헌병감 김영덕

저는 1995. 12. 31 육군 소장으로 전역하였습니다.

2004. 11월 초 MSO 초대 사무총장직의 제의를 받고 기도하던 중 러시아 000 선교사로부터 러시아 지역 군전도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수락하면서 “러시아군인들 가운데 과거 타지키스탄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타지키스탄 군인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2년 타지키스탄 군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비자문제로 조기 귀국함으로써 그곳에 대한 선교적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 전도집회(2004.11.10~12)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카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믿음의 군인들이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간증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있는 분들의 간증은 큰 감동이었기도 전이었습니다. 집회기간 중 멀리에서 참석한(카자흐스탄 바이카누르) 러시아 현역 중령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갖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타지키스탄 근무경험이 있는 군인이라도 소개받기를 원하며 왔는데 중앙아시아 지역 군전도집회를 의논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였겠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 준비하시고 이번 집회에 우리를 부르셨군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놓으시고 양육하셨다가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거두시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빠른시간 내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MSO가 도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귀국길에 모스크바에서 그렇게도 원했던 타지키스탄 현역 중위(러시아 군유학생)을 직접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2005. 2. 25~28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대회에 각국 지역대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한국) 2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회교권에서 최초의 공개적인 집회였고 더욱이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역사적인 집회였습니다. 참가한 분들은 순수하며 열정적이었고 핍박을 각오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상하게 하였습니다. 집회와 성찬식을 함께 하며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로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지막 날 기적같이 A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에 MCF가 설립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후 수차례 중앙아시아지역 전도집회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북방 국경접근지역 00교회 등 방문들이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지키스탄 군선교를 위해서 러시아 군인의 소개를 원하였는데 타지키스탄 현역장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주변 여러 나라의 믿음의 군인들까지 만나며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대회를 개최하게 해 주시고 A-stan, B-stan 2개국에 MCF가 설립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MSO 사무총장으로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중앙아시아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비사리온 김이 있는 사진이 비사리온의 사역에 문제가 있을지 장로님께서 걱정하심,  
비사리온에게 사진 게재 건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할 것 당부하심